신한금융,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0억원 기부

복구 기부금 5억원 추가

신한금융그룹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지난 6일 신한은행의 5억원에 이어 추가로 5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기부금은 수해 피해지역 복구와 물품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룹사별로 신한은행은 수해로 인해 일시적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카드대금 상환 청구 유예, 분할 상환 적용, 이자·연체료·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도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최대 6개월 동안 유예하고 있다.

사고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캐피탈은 수해 피해 기업에 대해 6개월 원금 상환 유예와 자동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창균 기자

"오픈뱅킹 잡아라"… 은행들, 신규고객 유치 '사활'

앱 개편 통한 주도권 경쟁
우리, 모든 은행 계좌 조회
IBK, 타은행 이용 간소화
신한, 간편 통합 자산 관리

시중은행들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 전면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픈뱅킹 활성화로 소비자들의 주거래은행 개념이 약해지면서 모바일 플랫폼 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모바일뱅킹 '우리WON(원)뱅킹'에서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메인화면에서 모든 은행 계좌 간편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잔액 확인도 가능하다. 개선된 주요 기능은 ▲메인화면에서 모든 은행 계좌 간편 조회 ▲메인화면에서 계좌 총 잔액 확인 ▲SMS·카카오톡 계좌정보 자동 입력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용자 화면 개편을 통해 메인화면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이 보유한 계좌 총액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했다. 전체 금융 자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계좌이체 시 문자, 카톡 등에서 복사한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등 편의성도 높였다.

우리은행 오픈뱅킹은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어 이체·거래내역 조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으로 한 번에 모으기'를 통해 최대 5개의 다른 은행 계좌에서 우리은행 계좌로 인증 없이 자금을 이체할 수도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우리WON뱅킹 앱(App)을 통해 '우리WON 오픈뱅킹' 서비스를 출시했다. 오픈뱅킹 전용상품으로 '우리 WON모아' 통장·적금·예금 3종을 선보였다.

통장은 마케팅 동의, 우리은행 오픈뱅킹 이용 등의 조건 충족시 잔액에 따라 최대 연 1.2%의 금리가 제공된다. 적금은 만기 6개월 상품으로 우리은행 오픈뱅킹 이용횟수 등에 따라 최대 연 4.0%의 금리가 적용된다. 예금은 만기 6개월, 1년의 상품으로 오픈뱅킹을 통해 타행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신규 조건 등을 충족시 최대 연 2.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4일 개인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i-ONE 뱅크'의 화면을 재배치하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 무엇보다 다른 은행 계좌를 보유한 고객들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다른 은행계좌의 이체, 잔액·거래내역 조회 등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첫 화면에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배치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인 계좌조회 화면에 다른 은행 계좌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은행 계좌처럼 조회·이체 등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도 'My자산' 서비스를 통해 통합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타 은행 거래에서도 '간편앱출금', '꾹이체', '바로이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먼저 '간편앱출금'은 신한 쏠(SOL)에 등록된 타은행 계좌에서 출금 신청을 한 후 일회용 인증번호를 받아 신한은행 ATM에서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기능이다. 현금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타은행 계좌의 현금을 간편하게 출금할 수 있다.

'꾹이체' 서비스도 제공한다. '꾹이체'는 쏠(SOL)에 등록된 계좌 목록에서 본인 명의 계좌간 이체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계좌번호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출금하고자 하는 계좌를 꾹 눌러 입금하고자 하는 계좌로 드래그(끌어오기)하면 비밀번호 입력 없이 간단하게 이체가 가능하다. 아울러 스마트폰의 바탕화면에서 로그인 하지 않고도 이체 할 수 있는 '바로이체' 서비스도 제공한다. 휴대폰 화면의 앱 이미지를 길게 누르면 별도의 메뉴가 표시되고 이때 이체 버튼을 눌러 거래를 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금융자산 수준을 연령대·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내 금융생활 비교' 서비스를 선보였다.

오픈뱅킹이란,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결제·송금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시범 도입돼 같은해 12월 전면 시행됐다.

사진=시장경제 DB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오픈뱅킹 가입자는 4096만명에 이른다. 등록계좌만 6588만좌에 달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핀테크들도 편의성을 무기로 함께 경쟁하고 있어 은행들도 계속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내놓는 방식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taeyoung8317@meconomynews.com

무디스, 대구·부산·경남銀 신용등급 '유지'

"자본적정성 3년내 회복"
"낙관론에 '3분기 저점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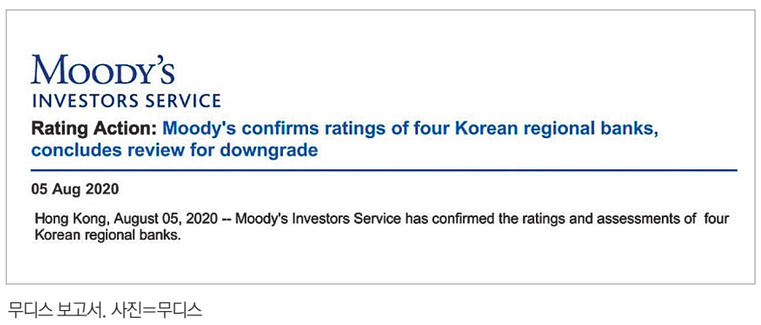
무디스가 최근 DGB대구은행과 BNK부산·경남 은행의 신용등급을 재확인하고 당분간 자산건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무디스는 지방은행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년 하반기부터 여신성장도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 측은 "글로벌·내수 수요 둔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과 유동성 지원으로 상당부분 상쇄됐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무디스는 지방은행들이 지난 2~3년간 지속적으로 대출 리스크를 줄이고 우량 고객의 비중을 높여왔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자산건전성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대구·부산·경남은행은 고위험 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어 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전망은 향후 신용등급의 향상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MOODY'S INVESTORS SERVICE

Rating Action: Moody's confirms ratings of four Korean regional banks, concludes review for downgrade

05 Aug 2020

Hong Kong, August 05, 2020 -- Moody's Investors Service has confirmed the ratings and assessments of four Korean regional banks.

무디스 보고서. 사진=무디스

BNK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독자신용도(BCA)는 'Baa1', 장기은행예금등급은 'A2'를 유지했다. 무디스 측은 2014~2019년 유형자산 대비 평균 당기순이익 비율이 0.6%로 양호했으며 주 사업지역 내 고객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한 우수한 자금조달 구조를 높이 평가했다.

DGB대구은행은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여신포트폴리오와 자본적정성을 유지한 것이 득점 요인이 됐다. 무디스 측은 "거점지역 내 우수한 영업력을 고려해 'Baa1'의 독자신용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무디스는 유사시 대구은행이 갖는 '거점지역내 시스템적 중요성'에 따라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당분간 대구·부산·경남은행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은행의 재무지표가 개선될 경우 '안정적' 전망으로 상향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7월 은행권 순이자마진(NIM) 역시 전월 대비 1bp 하락하는데 그치면서 이른바 '3분기 저점론'이 대두되고 있다.

반대로 비관론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1일 "현재 엄청난 양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지표들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양일국 기자 kookie@meconomynews.com

상반기 은행권 순이익 18% 줄어 6조 9000억

코로나 반영한 대손충당금
이자 이익은 전년과 비슷

올해 상반기 은행권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 급감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손비용이 증가해 순이익이 대폭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7.5%(1조 5000억원) 감소한 6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반기 이자이익은 20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9억원(0.2%) 줄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순이자마진(NIM)이 0.17%포인트 하락했지만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하면서 순이자마진 감소를 상쇄했다.

상반기 순이익은 대손비용이 끌어내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한 것이다. 상반기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3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원(157%) 늘었다.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3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00억원(7.9%) 늘었다.

이는 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관련 이익과 환율 변동성 확대로 외환·파생상품관련이익이 각각 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신탁관련이익은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사태 이후 영업 위축 등으로 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9%,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6.68%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6%포인트, 1.69%포인트 하락했다. 전년 동기 대비 자산과 자본은 늘었으나 순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국내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11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1억원(0.6%) 늘었다.

반면 상반기 국내은행의 법인세비용은 2조 4000조원으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 감소(-12.6%)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happy@newdailybiz.co.kr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2015년 Press Lions Silver Lion Campaign

Title: FRENCH HORN 프렌치 호른
Client: DABUR 다부르
Agency: McCANN WORLDGROUP INDIA Mumbai 맥칸 월드그룹 인도 뭄바이

Product: GASTRINA 가스트리나 (소화제)
Copy: 단순하지만 명료하다. 이 소화제 하나면 속이 뻥 뚫릴 수 있음을 인쇄 광고 한장으로 나타낸 작품.